

# 주택경기 침체속 ‘싸늘이 경매’ 속출

## 목포 오피스텔 1명이 28세대 ‘독식’

## 임대사업 겨냥 자금 유입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법원 경매시장에서 수십 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한 사람이 낙찰받는 이른바 ‘싸늘이 경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청 이전 이후 목포시와 무안군 등을 중심으로 경매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낙찰률이나 입찰경쟁률 등이 급등하는 등 지역 내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16일 경매정보업체 ‘국옥선’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에서 진행된 목포시 상동의 성광오피스텔 경매에서 대상 물건 37세대 가운데 36세대가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낙찰됐다. 낙찰가는 세대당 평균 2천143만9천원으로, 총 낙찰금액은 7억7천181만7천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A씨는 28세대를 낙찰받아 전체 물건의 78%를 독식했으며, 부동산 관련 법인도 5세대를 낙찰받았다. 반면 개인이 낙찰받은 물건은 3세대에 그쳐 ‘솔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강원

도 정선의 보은아파트 경매에서 50㎡ 이하의 33세대가 한 사람에게 낙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경매시장에서 ‘싸늘이’ 낙찰이 잇따른 것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매입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장기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몰려 일부 인기지역의 경매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목포시와 무안군 등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목포는 올 상반기에 아파트 89건이 경매에 부쳐진 가운데 82건이

낙찰됐다. 이는 낙찰률이 92%에 이른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83%)보다 9%p 높아졌다. 또 이들 물건에는 건당 평균 7.52명의 응찰자가 몰려들면서 지난해 상반기(2.35명)보다 3배 이상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목포 경매시장에는 비수기인 3·4분기에도 건당 평균 4.57명이 몰려든 가운데 30건의 아파트가 낙찰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옥선 관계자는 “목포 등 지방 소재 아파트는 비교적 권리분석이 간단하고 저평가된 물건이 많은 데다 향후 관리도 쉽다는 점 등에서 임대수요를 겨냥한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취업자 2개월 연속 30만명 상회

## 실업률 광주 3.7% 전남 1.7% ‘안정’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3천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상반기에 월별 신규 취업자 수가 25만~28만명에 그쳤던 만큼 올해 정부 목표달성을 위해선 하반기 증가폭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 수는 총 2천375만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30만3천명(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2%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3~5월 27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6월 31만5천명으로 10개월만에 30만명을 돌파한 이후 2

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49세(5만4천명), 50~59세(27만7천명), 60세 이상(13만4천명) 등 4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29세(-5만2천명), 30~39세(-10만2천명) 등 청년층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40대 이하의 인구 자체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지역은 취업자 수 증감에서 대조를 보였다.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는 총 63만8천명으로, 전년동월과 전월에 비해 각각 1.3%(8천명), 0.2%(1천명)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달 취업자가 90만1천명에 그쳐 전년동월과 전월보다 각각 2.0%(1만8천명) 줄었



다.

광주·전남은 또 지난달 실업률이 각각 3.7%, 1.7%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실업률이 전월인 지난 6월(4.3%)보다 0.6% 낮아졌으며, 전남도 실업률이 지난해 7월(1.9%)에 비해 0.2% 떨어지면서 강원(1.7%)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전남 7월수출 호조

## 석유·철강 등 주도

광주지역 수출은 주춤한 반면 전남지역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17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7월중 광주 수출은 7억4천300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7.7% 감소했으나, 전남수출은 19억5천900만달러로 19.7% 늘었다.

광주의 경우 승용차(1억4천100만달러), 반도체(2억100만달러), 타이어(9천400만달러), 병장고(8천300만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전남은 석유제품(4억9천100만달러), 유기 및 무기화합물(3억3천200만달러), 철강판(2억6천600만달러), 인조플라스틱 및 제품(2억7천400만달러) 등이 호조였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 ‘면세유 도둑’ 96명 적발

## 국세청, 세금 32억 추정

국세청은 16일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한 혐의가 있는 농어민과 주유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자 96명을 적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세금 32억원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부정유통에 관련된 농민 34명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해당농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해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농어민과 주유소 등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적조사를 했다.

부정유통 유형별로 보면 농민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사들여 면세유를 구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주

유소사업자 등 62명이 28억원을 추정당했고 면세유를 차량연료 등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농민 등 33명이 2억원을 추정당했다. 공급대상이 아닌 농가계에 착오로 면세유를 배정한 농협조합 1곳도 적발돼 2억원을 추정받았다.

주요소 등은 지역농협에서 면세유 구입권을 받은 농민들로부터 웃돈을 주고 면세유 구입권을 매입한 뒤 면세유를 확보했고 이를 과세유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아 부가세 등을 탈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면세유 유통과정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 공동 상표 홍보지원 대상

## ‘남도명가김치’ 등 4곳 선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최근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관료확대를 위해 남도명가김치 등 4개의 공동상표를 홍보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상표는 ▲남도명가김치=궁’s 푸드(갯김치 등) ▲광주·전남목재가공사업협동조합=자이리(가구) ▲예천영농조합법인=고향미가(묵은지) ▲(주)산들촌=산들촌(친환경 가공식품) 등이다. 중기청은 이들 상표에 대해 TV·신문·잡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소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동상표의 성과가 좋을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 기아차 사회봉사단 심폐소생술 교육

16일 광주공장 연수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기아차 사회봉사단은 광주·전남 11개소 등 전국 8개사 2천28명으로 구성된 재해 구호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사회봉사단 호남지역 리더들이

## 전남신보 김윤옥 이사장 취임

전남신보보증재단 제3대 이사장에 김윤옥(60)씨가 16일 취임했다.



2대 이사장을 지내고 재선임된 김 이사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보증지원과 현장중심의 업무처리 등을 통해 전남지역 경제발전의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영광 출신인 김 이사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은행에 입사한 후 신용보증기금 목포·광주지점장, 신보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3월 특가**

173-5279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172-5279

174-5279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50% 할인

173-5279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173-5279